

<2011년 10월 2일 주일말씀>

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수록 나에 대해 많이 배우고 나를 많이 알게 된다

본 문 에베소서 5장 16-18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의 설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 새벽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늦게 일어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부지런히 기도할 준비를 하고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치도록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성도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라고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자기가 지은 죄같이 통회 자복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날 새벽에는 ‘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탄이 묶어 놓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 주님을 못 믿게 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 보았겠지만 회개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하는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영계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 영들을 보면 마치 축구 경기, 야구 경기가 끝나고 물려가듯 구름같이 수많은 자들이 모두 자기 죄 짐을 지고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구부리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회개 기도하는 주권밖에 없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생명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입장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까지 130억 년도 더 걸렸는데, 저들은 저렇게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마치 좋은 세상이나 가듯이 모르고 가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생명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며 계속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 별 효과가 없으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딴 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 공로로 그에 합당하게 각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 가정에서도 형제 중에 대표가 되는 자가 부모에게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진정 회개하면 잘못된 자가 부모에게 회개하지 않았어도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시대 기준자나 대표자가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니, 지도자나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시대의 죄에 대하여, 시대의 의에 대하여 늘 고하여라.” 하셨습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교회를 위해, 또 자기가 책임진 자들을 위해 정말 눈물의 강을 이루면서 기도해 주고 통회 자복하며 회개해 줘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용서를 받으면 그 영도 육도 사망에서 나오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 때문에 주권을 부리고 세력을 부립니다. 자기 죄와 형제의 죄를 놓고 진정 회개하기를 주님도 선생도 진정으로 바랍니다.

선생이 기도하고 나서 한 지역을 쳐다보니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온 후에 골짜기의 물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팔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남 살리려다가 내가 죽겠어요. 저도 살아야 되겠어요. 5분만 눕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남을 살리려고 죽지 않았느냐. 너도 계속 그리하면 죽지. 희생하면 희생한 쪽은 죽고 상대는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잠깐 누우니 살짝 잠이 왔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오늘 말씀이 있다. 잠언도 있다.” 하셨습니다. 너무 지치도록 기도하여 힘이 없어 누워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은 하나의 설교를 통해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이다. 일어나라. 기록해야 된다.” 하시며 이어서 첫 번째 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에 벌떡 일어나서 이 말씀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들겠습니다.

1. 나 예수의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많은 것을 배우고 나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2. 나 예수는 한 사람을 보고도 그때그때 사명의 할 일에 따라,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한다.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 많은 것을 배우고, 나 예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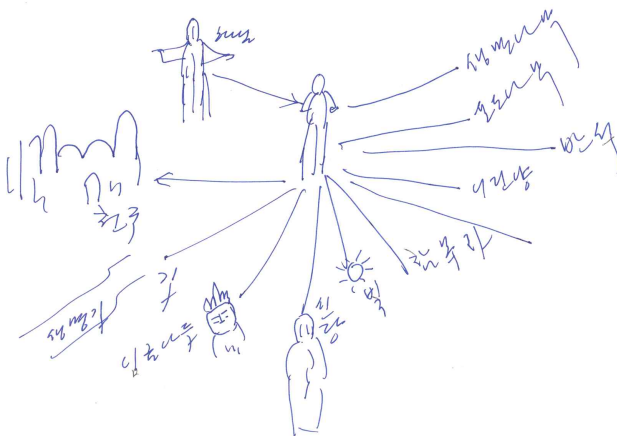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3. 나 예수 하나를 놓고 성경은 수백 가지 비유로 말했다.

<영상1> 어느 때는 반석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후아담으로서 생명나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참포도나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어린양 같다고 말했고, 어느 때는 참목자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주인이라고 말했다. 어느 때는 임금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심판주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생명길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나 예수가 곧 천국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너희 형제, 혹은 친구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나 예수의 입장과 처지가 그때그때 그러함을 비유를 들어 말했다. 아직도 수백 가지가 더 남았다. 너희는 나 예수의 말귀를 알아듣느냐. 내 말귀를 알아듣는 자는 많이 배우게 되고 나 예수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아멘.)

<영상1> 영상과 띄워 놓고 설교 (설교에 나온 대로 '말씀' 비유한 것 다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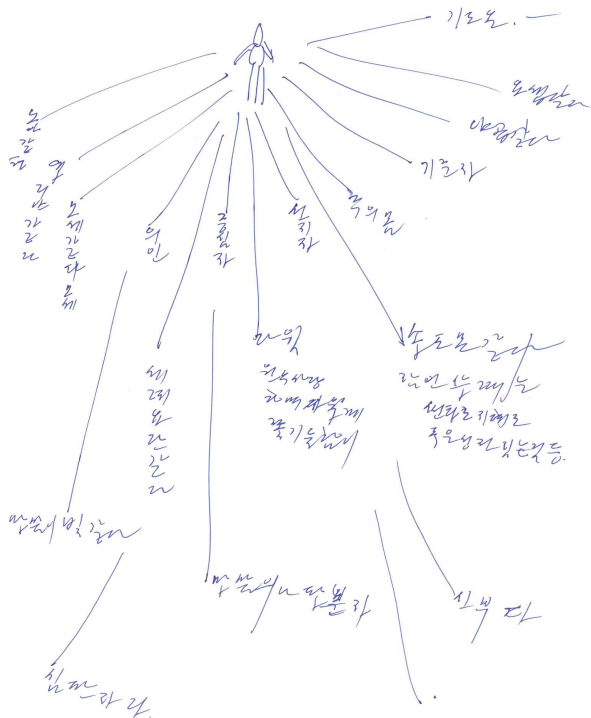
주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을 하나 더 듣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4. 나 예수는 한 사람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말한다.

<영상2> “그는 시대 중심자다. 선지자다. 나의 몸이다. 표상자다. 기준이다. 나의 두 증인이다. 의인이다. 이 시대 모세 같은 자다. 여호수아 같은 자다. 엘리야 같은 자다. 노아 같은 자다. 요셉 같은 자다. 야곱 같은 자다. 기드온 같은 자다. 다윗 같은 자다. 솔로몬 같은 자다. 왕 같은 자다. 나 예수 앞에 세례 요한 같은 자다. 이 시대 나의 신부로 택한 자다. 이 시대 죄 때문에 시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자다. 시대 생명의 길이다. 내가 말한 성경말씀의 예언을 땅에서 이루는 자다. 땅에서 내가 준 시대 새 역사 말씀의 나팔을 부는 자다. 이 시대 사랑의 조건을 세운 표상자다. 신부의 처음 열매다. 아담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룬 자다. 성령의 표상이다.” 라고 말한다.

이같이 한 사람을 놓고, 그가 나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처지와 입장을 볼 때 그때그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나의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나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된다. (아멘.)

<영상2> 영상과 띄워 놓고 설교 (설교에 나온 대로 ‘한 사람’ 비유한 것 다 넣기.)



이외에도 이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잠언이 많이 있지만 새벽에 듣도록 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해 주시고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전초로 전한 잠언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면 수백 가지를 알 수가 있고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3>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나의 말을 알아듣고 내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래야 신앙의 지식이 더해지고, 나 예수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너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예수의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로 배웠다. <영상4> ‘말씀’ 한 가지를 놓고 불이라고 말했고, 전쟁의 각종 무기라고 말했고, 검이라고 말했고, 양식이라고 말했고, 꿀이라고 말했고, 물이라고 말했고, 열쇠라고 말했고, 철장이라고 말했고, 인이라고 말했고, 나팔이라고 말했고, 피리라고 말했고, 혀라고 말했고, 채찍이라고 말했고, 입의 막대기라고 말했고, 밤의 등불이라고 말했고, 빛이라고 말했고, 가뭄의 소낙비라고 말했고, 황금이나 각종 보석이라고 말했다. 또 말씀을 신이라고 말했고, 내 말은 생명이라고 말했다.

<영상4> 영상 띄워 놓고 설교 (영상1, 2처럼 제작)

말씀을 이같이 다양하게 비유하며 말한 것은 말씀이 너희 육과 영에 게 그와 같은 사명을 한다는 것이다. 말씀이 자기 처지와 때와 위치와 사명에 따라 다양하게 비유한 대로 그같이 쓰인다는 것이다. 고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켜야 이 같은 위력으로 너희에게 함께하여 표적이 일어나

게 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나 예수다. 고로 말씀을 지키면 그때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명을 받은 자는 계시록 11장 말씀같이 그 사명자의 입에서 불이 나가 원수를 사른다고 한 것이다. 불은 ‘말씀’이다. 나는 나 예수의 증인인 시대 사명자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었다. 고로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가 좌우된다. 그 입에서 멸하는 말씀이 나가면 원수를 멸하게 되고, 그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가면 축복이 된다. 그가 말씀하는 대로 시대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모세 때도, 엘리야 때도 그러했다. <영상5>

<영상5> “모세 때도 엘리야 때도 그러했다.” 말씀 나가고,
곧바로 이어서 영상 보여 주기.

<시작 자막>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굶은 벼룩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3-5절)

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재앙을 내리니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는 모습 (열 가지 재앙) /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니 가물어서 냇가에 고기가 죽고 땅이 갈라진 모습

<동시에 자막>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② 선생님 홍콩 계곡 청소

<자막과 설명> “나만 청소하려면 평생 해야 하니 온 세계 민족들이 청소하여 깨끗이 살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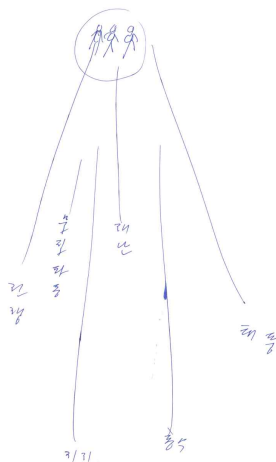
→ 이어서 사스(SARS)가 일어나 사람들 마스크 하고 다니고, 전 세계로 번져서 사람들 죽는 모습

③ 그밖에 코소보 전쟁, 각 나라 지진 등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며, <자막과 예수님 말씀> 말씀의 사명을 받은 자는 계시록 11장 말씀같이 그 사명자의 입에서 불이 나가 원수를 사른다. 불은 ‘말씀’이다. 나는 나 예수의 증인인 시대 사명자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었다. 고로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가 좌우된다. 그 입에서 멸하는 말씀이 나가면 원수를 멸하게 되고, 그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가면 축복이 된다. 그가 말씀하는 대로 시대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영상6>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민족과 지역이 불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추위와 눈 재해와 태풍과 전쟁과 물가파동과 금리 파동 등 온갖 재난들과 어려움을 당한다. (여기까지 영상을 연속 돌리니 기다리고 영상이 끝나면 다음 문장 말씀 읽기.) /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지켜라.

<영상6> 뉴스같이 연속으로 영상을 보여 준다.

위에는 하나님 형상(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이 손짓하시는 모습 / 그러니 지구 여기저기에 홍수, 비, 지진, 전쟁, 태풍, 가뭄 등 각종 재앙이 닥치는 모습 (뉴스같이 연속)



<영상7> 단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민족과 세계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민족에 이 같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 선지자들이나 중심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영상7> 영상과 동시에 설교

단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니 선악 간에 받는다. (예수님 단상에 서 계시며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모습)

너희는 내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너희 말로 사탄을 멸하여라. 또한 복음을 반대하거나 악평하는 자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며 나 예수 이름으로 입의 검으로 싸워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입의 검이요, 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입의 검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우자. <영상8>

<영상8>

*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우자.” 말씀 나가고, 곧바로 이어서 영상 보여주기.

악평하고 복음을 막는 사탄, 마귀, 인사탄 : 기도의 검,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모습 / 사탄, 마귀, 인사탄이 그 검을 맞고 쓰러지고 고꾸라지는 모습, 악한 자가 넘어지고, 인터넷 악평 글을 보다가 불이 나는 모습 / 악평자들이 사탄과 함께 핍박하고 막고 악평하는 모습 : 주님이 천사를 통해 채찍질하는 모습

<자막과 말씀> 몰라서 악평하고 복음을 막더라도 그 행위대로 받는다. 고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 입의 검으로 싸워라.

너희 가운데 나의 사명을 맡고 충성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나는 그 때에 맞게 나의 사명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세례 요한 사명이다. 너는

모세 사명이다. 너는 사도 바울 사명이다. 너는 사사 사명이다. 너는 성령 사명이다. 너는 야곱 노정을 걸어간다.” 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생각하면 유혹되어 사탄의 꾀를 받는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너희는 이 시대 나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각각 그 처지와 입장이 달라진다. 한 센터로 볼 때 어느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서 바울같이 외치고, 어느 때는 우물가 여인 같은 입장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게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 같은 입장이 되기도 한다.

<영상9> 어느 때는 아브라함 입장같이, 어느 때는 이삭 입장같이, 어느 때는 야곱 입장같이, 어느 때는 요셉 입장같이, 어느 때는 엘리야 입장같이, 어느 때는 사무엘 입장같이, 어느 때는 다윗 입장같이, 어느 때는 에스더 입장같이, 어느 때는 나 예수 입장같이, 어느 때는 성령님 입장같이, 어느 때는 베드로 입장같이 사명을 하게 된다.

어느 때는 모세같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고, 어느 때는 솔로몬같이 나의 전을 세우고, 어느 때는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하고, 때에 따라 어느 때는 욥 같은 처지와 입장이 되어 사명을 하게 된다.

어느 때는 신부 입장에서 나의 일을 하고, 어느 때는 재림시대에 나 예수의 몸이 되어 나의 일을 하고, 어느 때는 부모 입장이 되어 나의 일을 하고 어느 때는 참목자 입장에서 나의 일을 하기도 한다.

<영상9> 영상과 동시에 설교

나팔 부는 기드온,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는 다윗, 옥에 갇힌 바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 여인 (위의 설교 내용 순서에 따라 영상 제작)

자기 때에 그 입장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각각 성경에 나온 인물들같이 그러한 처지와 입장이 되어 나의 일을 하게 된다. 여호수아같이 담대

해야 될 때에 순진하기만 하면 사탄과 인사탄을 이길 수 있겠느냐. 고로 입장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이 되어서 이 시대 크고 작은 나의 일들을 하게 된다.

<영상10> 이를 잘못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자체다. 성령 자체다. 내가 메시아 자체다. 내가 가브리엘 천사 자체다. 내가 미가엘 천사 자체다. 내가 사도 바울이다. 내가 모세다. 내가 엘리야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장본인들이 천국에서 보고 웃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화하면 자기 자체가 사탄의 왕 루시퍼가 된다.

<영상10> 영상과 동시에 설교

자기를 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체라고 하는 자들

나 예수를 중심하여 사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같이 그런 처지와 입장에서 그와 같이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느 때는 느고 왕 입장, 어느 때는 요시아 왕 입장으로 처신하라는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리하면 신앙의 지식이 더해져 지식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나 예수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내 말을 알아 듣고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 분별의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잘못된 신흥종교들이 일어나 혼잡하게 되고 어지럽게 된 것이다.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 세상 유혹을 이기고 잘못된 자들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과 나 예수가 성경에 말한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자들은 나 예수가 자기와 함께하니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가다 변하여 “나 자체가 하나님이다. 나 자체가 예수님이다.” 하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어떤 종교의 아줌마는 성령이 함께하시니 잘못 판단하여 “나 자체가 성령이다.” 하고 가증된 말을 하며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

<영상11> 자기 자체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자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에 속한 잘못된 자들이다. 만일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또 따르는 자들까지 회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사칭하고 자기화하여 모독하였으므로 사망 지옥의 세계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같이 자기를 섬기게 한 자들과 우상을 섬기게 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자들은 다 같은 죄를 지은 자들로서 성경 말씀대로 세세토록 유향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쫓값을 받는다.

<영상11> 영상과 동시에 설교



나 예수가 함께하기가 무섭다. 자기가 하늘의 전능자 성자 예수라고 할까 봐 무섭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자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도 함께하기가 무섭다고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자기 자체가 성령이라고 하니 성령님도 함께하시기가 무섭지 않겠느냐. 성경대로 사람은 모두 청지기이고, 사역자이고, 인간으로서 성삼위의 몸이 되어 행할 뿐이다.

<영상12> 나의 증거자인 너희 선생은 늘 말했다. 인간은 나룻배와 같고, 그 나룻배에 하나님도 싣고, 나 예수도 싣고, 성령님도 싣고 간다

고 했다. 인간은 전능자의 전초자다. 나의 청지기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의 일을 한다. 또한 나의 육신이 되어 나의 심부름을 한다.

<영상12> 영상과 동시에 설교



초림 때는 나 예수의 역할을 사도들이 해 주었고, 사도 바울이 해 주었다. 재림 때는 나 예수의 재림의 사명을 나의 육신으로서 너희 선생이 나룻배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백성 가운데 사명자들을 뽑아서 내 사역자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쓴다고 했다. 인간은 성경의 인물들같이 그때그때 중심자로서 중심 사명을 하며, 여러 성경 인물의 입장이 되어 그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사역을 하는 것이다.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내 말귀를 알아들은 만큼 많이 알 것이다. 또한 나 예수에 대해 근본을 배울 것이다. 고로 요동치 않을 것이다. 이 시대에 진실된 나의 사명자인 너희 선생은 내 육이 되어 나 예수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다. 그는 전능자와 나의 행함을 보았다. 세상의 환난과 재해도 보았다. 고로 증인이 되어 세상에 말해 주는 것이다. 그는 삼위체가 행하심을 알고 배웠기에 시대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 삼위가 행하신 일들을 이 시대에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때에 따라 여러 성경 인물의 입장에서 섭리역사를 펴 왔다. 2000년 전 나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왔을 때 겪었던 것처럼 너희도 시대적으로 나와 같이 겪으면서 전형 노정을 가며 재림시대 성약역사를 펴 왔다. 고로 2000년 전 나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왔을 때처럼 이 시대 섭리역사도 세상이 그같이 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대하시고 심판하셨다. 또한 잘못된 이론을 전하는 종교들도 모두 심판했다. 수많은 영혼을 잘못 인도하여 사망으로 가게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어도 나 예수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을 자기화하는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누구든지 성경을 벗어나고 나 예수의 뜻을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 가르치고 행하면 생명의 노선을 이탈한 차와 같아서 전복된다.

나 예수가 말한 말귀를 알아들어야 지식을 얻게 되고 나 예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사람을 통해 나의 말을 전한다. 내게 합당한 자를 통해 나의 말을 전한다. 그러니 너희 선생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너희 선생은 사람이니 행여 너희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더라도 반복해서 물으면 자세히 말해 주지 않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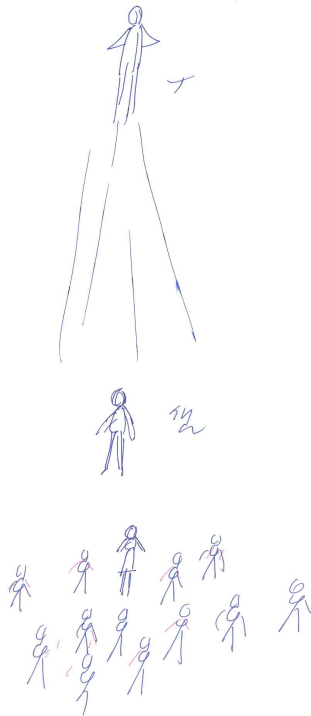
<영상13> 나는 나의 말쑈를 배우고 내 말귀를 제일 잘 알아듣는 자를 시대의 기준과 표상으로 세운다.

이 시대에 너희 선생이 성경의 모든 의문을 파헤치지 않았느냐.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인간 타락에 대하여, 성경 인물의 나이에 대하여, 아담의 갈비뼈 비유에 대하여, 성경 역사와 재림에 대하여 내게 배워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시대성에 따라 쪼개서 분석하고 계산했다. 모두 나 예수의 말을 듣고 성경대로 파헤친 것이다.

너희 선생은 내 말귀를 알아들었기에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되었고 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내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번 배워야 된다. 고로 나는 내 말귀를 알아듣는 자와 이 시대를 논하는 것이다.

<영상13> “나는 말씀을 배우고 ~ 이 시대를 논하는 것이다.”까지
영상을 화면에 띄워 놓고 설교



너희 선생은 내게 오랫동안 배웠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다. 나의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고로 나의 재림의 이치와 법칙을 알게 되었고, 내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다. 나와 말이 통하고, 나의 말귀를 알아듣고 척척 행하니 30년 이상 나의 증인이 되어 섭리역사를 지금까지 펴 오지 않았느냐.

<영상14> 너희 선생은 30년 전부터 내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는 육체로 안 온다고, 영체로 온다고 외쳤다. 지구촌의 모든 자들은 이를 몰랐다. 고로 반대하고 이단시켰다. 그래도 그 교리를 뺏기지 않고 30년 동안 외쳐 왔다. 모르는 자들은 2000년이 되면 꼭 나 예수가 육체로 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에 그대로 안 되니 낙심을 하고 흔들리고 있다.

너희 선생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과정 중에서도 나의 진리를 뺏기지 않음으로 성공했고, 그로 인하여 재림과 휴거의 비밀을 더욱 차원 높게 받아 완성하여 이제 결과적으로도 성공했다.

잘못된 자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외치고 살고 있다. 나 예수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온다. 영의 재림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직 천사장의 나팔은 불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재림주 자체라고 말하니 모두 절도들이요, 강도들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영이 듣는다. 너희 영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의 영의 재림을 맞으려면, 먼저 너희 육이 시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천사장의 나팔을 불고 나 예수가 영으로 재림할 때를 위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시대 말씀 나팔을 불고 있다.

육신 세계는 나 예수가 땅에서 나의 육신이 되는 자를 나룻배같이 타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하여 그 시대 모든 자들을 신부로 삼는다.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내가 영으로 재림할 때 나를 맞을 자들과 함께 먼저 육의 사람들부터 이 땅에서 재림 역사를 하는 것이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는 첫째, 이 시대 나의 육으로 쓰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 나를 맞아야 영으로 오는 나 예수를 맞는다는 말이다. 둘째, 시대 말씀 나팔 소리를 들어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다. 셋째, 이 땅에서 신부 집 혼인 잔치를 해야 하늘에서 신랑 집 혼인 잔치를 한다는 말이다. 신부 집은 확대하면 지구다. 축소하면 나를 믿고 사랑하며 온전한 시대 말씀을 듣고 나의 신부로서 나의 재림을 준비한 자들이다.

나 예수가 보낸 자는 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나 예수를 증거한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를 하나님같이 맞았듯이, 나 예수가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맞게 된다. 이런 자들이 재림을 맞을 몸으로 변화된 자요, 땅에서 휴거를 이룬 자다.

이에 따라 그 영도 육신의 행실을 따라 하늘의 형체로 온전히 변화되어 신부의 몸으로 살게 된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예수의 영체가 오면 그 영만 하늘나라로 휴거된다. 그 육신은 천사장이 나팔 불어도 하늘로 휴거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땅에서 육신의 생을 다할 때까지 나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면서 그대로 나를 믿고 사명을 하며 살게 된다.

하늘나라로 휴거된 영은 인간이 계산하는 날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 잔치 하면서,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까지 천국과 세상을 왕래하며 자기 육신을 돕게 된다. 그러다가 육신이 생을 다하고 죽으면 천국으로 와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영상14> “너희 선생은 30년 전부터 ~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영상에 맞게 설교 박자를 맞추면서 설교

섭리역사 재림 교리와 기독교 재림 교리 영상

* “너희 선생은 30년 전부터 ~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한 단락의 설교 내용에 따라 전체 영상 제작

내 말을 듣고 내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많이 알게 되고 나 예수를 많이 알게 된다. 나는 나의 말귀를 제일 잘 알아듣는 자를 나의 육으로 삼고 이 시대 역사를 편다. 너희 선생도 너희 선생의 말귀를 제일 잘 알아듣는 자를 자신의 몸으로 사용하면서 너희 선생의 육신이 못 하는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귀머거리요, 못 보면 소경이요, 못 깨달으면 마음이 강박한 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늘 나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자를 중심으로 두고 그에게 묻고 행하라.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행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행하면 너희 선생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 예수에게도 또 십자가를 지게 한다. 나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행하기 바란다. 내가 말한 말귀를 온전히 알아듣고서 행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육과 영의 운명이 사망으로 뒤바뀐다.

너희를 사랑하여 설교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한 성자 예수다.
샬롬!

<영상15> 예수님 인사로 마무리

<축 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맡귀를 알아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
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